

착현가



[해제]

<착현가>는 한지로 된 두루마리에다 근간에 필사한 노래다. 이 작품은 <착현가>라는 작품의 이름이 서두에 있을 뿐 일체 다른 기록이 없다. 그러므로 이 가사의 작가는 물론이고 필사자나 연대도 전혀 알 수 없다. 두루마리의 지질이나 표기법으로 미루어 보아서 오래된 작품은 아니다. 다만 노랫말이 난삽하고 방언 사용이 지나친 것으로 미루어 충분한 학업을 받은 사람의 작품은 아니다. 이 가사의 내용은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났다가 짧은 인생을 마치고 죽는 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서두에서 기술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가면 누구나 염라시왕들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곧 이 세상에서 선행과 덕업을 쌓지 못한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무서운 감옥에 떨어지고 선행과 공덕을 쌓은 사람은 원하는 대로 극락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선행과 덕업을 많이 쌓고 후생에 극락왕생하라는 내용의 노래이다. 이 가사는 "어하새상범임내야새상천지만"으로 시작되는 가사이다.

[원문]

착현가

어하새상 범임내야 새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박기 또인년가 여보시오 시준임내
 이내말슴 덜어보소 이새상애 나온사람
 내덕어로 나완년가 서가열애 공덕어로
 아번임전 뼈을빌어 어먼임전 살얼빌어
 칠성임전 명을빌고 제정임전 복을빌어
 이내일생 탄생한니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공 알을손가 이삼십을 당하여도
 부모은공 못다갑하 이삼십을 당하여도
 부모은공 다갑하서 이업고에 들고나무
 정새월 여류하야 인생백발 도라온니
 업편망영 절노난다 망연이라 흥을보고
 구석구석 운는모양 에달고 술혀지고
 절통하고 통분하다 할수업다 할수업다
 흥안백발 늘거간니 인간에 공노을
 누가능히 막을손가 춘초년 년년녹기나
 왕손은 귀불기라 우리인생 늘거지면
 다시 절며지진 못하리라
 인생백연 다살아야 병던날과 잠든날을
 걱정근심 다지하면 단사십을 못살인생
 어제오날 성탄몸이 성성약질 약한몸애
 태산갓턴 병이덜어 불어나이 어머니요
 찬난것이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썬덜
 약효력이 잇슬손가 판수불너 경일은들

경덕이나 잇슬가 무여불어 굿슬한들
 굿덕인들 잇슬손가 새미쌀을 쓸고쓸어
 명산대창 차자가서 상탕에 미을씩고
 중탕애 목꼭하고 하탕애 수족씩고
 촛대한쌍 빌켜두고 향노황합 불껴녹고
 소지삼장 을인후애 비나이나 비나니다
 하느임전 비나니다 칠성임전 발원하고
 신장임전 공양한물 어너선여 아오익가
 가뭉이나 할까분야 재일전에 주광대왕
 재이전에 초광대왕 재삼전에 송재대왕
 재사전에 완강대왕 재오전에 영나대왕
 재육전에 병선대왕 재칠전에 태산대왕
 재팔전에 평등대왕 재구전에 두시대왕
 재십전의 술너대왕 염나국의 들어와서
 열시왕애 멀현바다 한손에 철망들고
 또한손은 창경덜어 쇠사설노 벗겨치고
 확통갓치 굽은길노 삼대갓치 달여와서
 닳던문을 박차면서 왜성갓이 소리치고
 성명삼자 불너내여 어서가자 밥피가자
 니분부라 거역할까 내영이라 거역하며
 니영이라 지채할가 실낙갓던 이내몸의
 팔독갓던 싸사실노 결박하야 끄러내니
 혼비백산 나죽갓내 여보시오 사잔임내
 노자돈 각고가개 만단개유 외걸한들
 어느사자 들을손가 외고당당 슬혀지고
 이일을 어이 하잔말가
 불상하다 이내일신 인생하직 만격하다
 원통하면 명사심이 해당하야 꽃진다고
 슬허말야 명연삼월 봄이온면 너는다시
 피근만은 우리인생 한번가면 도라오지
 못하리라 북만산천 도라갈재 엇지갈고
 심산험로 한점 어벗난 길이로다
 엇지다시 도라올고 이새상은 하직한니
 불상하고 가이업다 처자의 손을잡고
 만단술화 다뭇하고 정신차려 살펴보니
 약탕관이 걸어녹고 지성구효 극진한들
 죽은목숨 살열손가 윗늘건니 하신말슴
 저성길이 멀다더니 오늘날 당해본니

대문박기 저성이라 칭구벗지 만타회도
어느칭구 도행할리 구사당의 하직하고
신사당에 현배하고 대문박길 썩나선니
적삼내여 손에들고 혼백불너 초흔하고
업든 곡소래 낭자하다
일직가자 등을밀며 풍우갓치 재촉한니
천방지방 모라갈재 놓흔대난 나자익고
나진대난 놓하익고 악애악심 모흔재산
먹고가나 싸고가나 사잔임아 사잔임아
내말잔간 들어시요 시장한대 정심식사
하고가요 신발이나 곳쳐신고 시여가자
외결 들은치도 안니하고 시몽치로
등을 밀치며 어서가자 밥비가자
이력저력 여러날에 저성의문 다다런니
우듀라찰 마두라찰 소래치며 달아돌어
인정달나 비능구나 인정쌀돈 반푼업서
허리끈 졸나메고 담배골꼬 모튼재산
인정한푼 씨볼손가 저성으로 옮겨올가
한점붓채 가져올가 이복벗서 인정씨며
열두대문 들어선니 무섭기도 그지업고
두렵기도 칭양업다 대명 기다린니
옥사장이 분부덕고 남여재인
등대할재 정신차려 살펴본니 열시왕이
자기하고 죄판관이 문서잡고 남녀제인
잡아들어 다짐박고 문초할제 어두괴면
나찰들은 전후자유 벌어서서 기치창검
삼열할대 형벌기구 차려녹꼬 되칭호령
기다리내 엄속하기 칭양업다
남자재인 잡아덜어 형벌하며 문년말이
이눔아 독어바라 성심하라 발원하고
인새간에 나가서 무삼성심 하엿는가
바런대로 알해여라 공봉비오 법을바다
임금임게 극간하여 나라여 충성하며
부모임게 효도하여 가뎡들 새웁선면
배푼니 밥을주어서 아사구재 하엿년가
출버선이 옷술주여 극낙공덕 하엿는가
조흔밭데 집을짓고 행인공덕 하엿년가
깊흔물애 다리노와 월천공덕 하엿년가

목마른니 물주어 검수공덕 하였가
병던사람 약을주어 음민공덕 하연년가
눅흔산에 불단지여 중생공덕 하연년가
조현밭태 원두노와 행인혜갈 하연년가
붓천임게 공양들어 마음딱고 앙침하야
념불공덕 하연년가 어진사람 모회하고
불혜행사 만하며 탐새함이 극심하니
너에재목 엇지하리 재약이 심중한니
풍도옥애 가두리라
착한사람 불너덜 래로하고 대접하며
몹쓸놈들 구경하라 이사람은 성심으로
경낙시기 가올터니 이안니 좃을손가
소완대로 물을적애 내완대로 하여주마
걱낙어로 갈라년 백만군중 노독되여
장수목니 대겐는야 어서 장생불사 하라년냐
서옥에 사자대여 박패소임 하라느냐
내소원을 아라여라 왕제에게 주품하사
남중절색 되어나서 요지연애 가라던야
뱅만군중 도독대여 장수몸이 대겐는야
어서밥비 알회여라 왕재전의 주문하여
서가열의 아무타불 재도하개 이문하자
산신불너 의논하여 어서밥비 시횡하자
저련사람 성심은로 지해대여 가난이라
대웅전의 초대하야 다음너 대접하며
몹쓸놈덜 잡아내야 착한사람 구경하라
너해놈은 재중한니 풍도옥애 가두리라
남자재인 재찰한후 여자재인 잡아덜어
엄현국문 하난말에 너회재목 덜어바라
시부모와 친부목개 지성어로 하였는야
동기간애 우애하여 친척간애 화목 하연년야
깨악하고 간특한연 부모가정 거역하고
동기간애 이간하고 형재불목 하개하여
새상간약 다부리여 열두마음 변훤 못던년대
욕을하고 마조안자 우섬낙산 군말하고
성내연연 남애말울 일삼년연 시기하기
조하한연 비도옥애 가두리라
재목을 물은후애 온갓형벌 하년구나
재개경중 알리여서 차래대로 처벌할재

도산지옥 한천지옥 경주지옥 탐산지옥
독새지옥 아침지옥 거래지옥 거해지옥
각처지옥 분부하야 모던죄인 첫결한후
애대연을 배슬하고 착한여자 불너덜려
공경하며 하년말이 소원대로 다일너라
선여대여 갈라년야 요지연애 갈라는야
남자대여 갈라년야 재상분인 대라년야
고실황후 대라는야 재후왕비 대라는야
부기공명 하라느야 내원디로 하여주마
소원되로 다일려라 선여불러 분부하야
격낙어로 가기한니 그아인 조혈손가
성심하고 마음딱가 불개황사 하지마소
히심곡을 업신 여기지 말소
선심공덕 안이한면 우마형상 못면하고
구령배암 못면한내 조심하야 수신하소
수신재 가능하면 치국안민 하오리니
아똥쫓록 힘을써고 적덕을 만이하면
신후사가 착륙한니 바라난이 우리형재
자선사업 만니하야 되왕길을 잘따가서
격낙어로 나와가세

[현대역]

어화 세상 벗님네야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사람 밖에 또 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네1
 이 내 말씀 들어 보소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내 덕으로 나왔는가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버님 전 뼈를 빌어 어머님 전 살을 빌어
 칠성님 전2 명을 빌고 재정임 전3 복을 빌어
 이 내 일생 탄생하니 한두 살에 철을 몰라
 부모 은공 알손가 이삼십을 당해서도
 부모 은공 못 다 갚아 이삼십을4 당해서도
 부모 은공 ∞ 다 갚아서5 이 업고에 들었구나
 여류하여6 인생 백발 돌아 오니
 없던 망령 절로 난다 망령이라 흉을 보고
 구석구석 웃는 모양 애달프고 슬픈지고
 절통하고 통분하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흉안백발 늙어가니 인간에 공로를
 누가 능히 막을 것인가 춘초는 연년녹이나
 왕손은 여류하여7 우리 인생 늙어지면
 다시 젊어지진 못 하리라 인생 백 년 다 살아야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사십을 못 살 인생 어제 오늘 성하던 몸이
 섬섬 약질8 약한 몸에 태산 같은 병이 들어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 것이 냉수로다
 인삼 녹용 약을 쓴들 약 효력이 있을 손가
 판수 불러9 경 읽은들10 경 덕이나 있을까
 무녀 불러11 굿을 한들 굿 덕인들 있을 손가
 세미쌀을12 쏘고 쏘어13 명산 대천 찾아가서
 상탕에 머리를 씻고14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손발 씻고 촛대 한 쌍 밝혀 두고
 향로 향합 불켜 놓고 소지 삼 장15 올린 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 전에 비나이다
 칠성님 전 발원하고 신장님 전16 공양함을17
 어느 선녀 아오리까 가뭇이나18 할가보다
 제일 전에19 주광대왕20 제이 전에 초강대왕21
 제삼 전에 송제대왕22 제사 전에 완강대왕23
 제오 전에 염라대왕24
 제육 전에 병선대왕25
 제칠 전에 태산대왕26 제팔 전에 평등대왕27

제구 전에 두시대왕28 제십 전에 술너대왕29
 영라국에 들어 와서 열 시왕에 알현한 바다.
 한 손에 철망 들고 또 한 손에 창검 들어
 쇠사슬로 빗겨 치고 확통 같이30 굽은 길로
 삼대 같이31 달려 와서 닫은 문을 박차면서
 뇌성 같이 소리치고 성명 삼 자 불러 내어
 어서 가자 바빠 가자 뉘 분부라 거역할까
 뉘 영이라 거역하며 뉘 영이라 지체할까
 실날 같은 이 내 몸에 팔뚝 같은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어 내니 혼비백산32 나죽겠네
 여보시오 사자님네33 노자 돈34 가지고 가게
 만단개유35 애걸한들 어느 사자 들을 손가
 아이고 당당 슬픈 지고 이 일을 어이 하잔 말인가
 불쌍하다 이 내 일신 인생 하직 만무하다
 원통하면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슬퍼 마라 명년 삼월 봄이 온면 너는 다시
 피건마는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 하리라 북망산천36 돌아 갈 제 어찌 갈고
 심산 험로 한 점 별 없는 길iero다 어찌 다시
 돌아올까 이 세상을 하직하니 불쌍하기
 가이 업다 처자의 손을 잡고 만단술회37
 다 못하고 정신 차려 살펴보니 약탕관을
 걸어 놓고 지성 구호 극진한들 죽은 목숨
 살릴 손가 웬 늙은이 하신 말씀 저승 길이
 멀다더니 오늘날 당해보니 대문 밖이
 저승이라 친구 벗이 많다 해도 어느 친구
 동행하리 구사당에38 하직하고 신사당에
 현배하고39 대문 밖 길 썩 나서니 적삼 내어40
 손에 들고 혼백 불러 초혼하고41 없던 곡소리
 낭자하다
 일찍 가자 등을 밀며 풍우 같이
 재촉하니 천방지방42 몰아 갈 때 높은 데는
 낮아 있고 낮은 데는 높아 있고 악에 악심43
 모은 재산 먹고 가나 싸고 가나 사자님아
 사자님아 내 말 잠깐 들으시오 시장한데
 점심 식사 하고 가요 신발이나 고쳐 신고
 쉬어가자 애걸해도 들은 척도 아니 하고
 쇠뿔치로 등을 밀치며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이력저력 여러 날에 저승의 문 다다르니
 우두나찰⁴⁴ 마두나찰⁴⁵ 소리치며 달려 들어
 인정 달라⁴⁶ 비는구나 인정 쓸 돈 반 푼 없어
 허리끈 졸라매고 담배 꿸고 모은 재산
 인정 한 푼 써 볼 손가 저승으로 옮겨올까
 한 점 부채 가져올까 의복 벗어 인정쓰며
 열두 대문 들어서니 무섭기도 그지없고
 두렵기도 측량 없다 대명을 기다리니
 옥사장이 분부 듣고 남녀 죄인 등대할 제⁴⁷
 정신차려 살펴보니 열 시왕이 자리하고⁴⁸
 죄 판관이⁴⁹ 문서잡고 남녀 죄인 잡아드려
 다짐받고 문초할 제 어두가면⁵⁰ 나찰들은
 전후좌우 벌려 서서 기치창검⁵¹ 삼렬할 때⁵²
 형별기구 차려 놓고 대청 호령 기다리네
 엄속하기 측량 없다 남자 죄인 잡아드려
 형별하며 묻는 말이 이 놈아 죽어 봐라
 성심하라 발원하고 인간 세상에 나가서
 무슨 성심 하였는가 바른 대로 말하여라
 공봉비오⁵³ 법을 받아 임금님께 극간하여
 나라에 충성하며 부모님께 효도하여
 가뭇들새 뱃선면⁵⁴ 베푸니 밥을 주어서
 아사 구제⁵⁵ 하였는가 흠 벗은 이 옷을 주어
 극락공덕 하였는가 좋은 밭에 집을 지어
 행인공덕⁵⁶ 하였는가
 깊은 물에 다리 놓아 월천공덕⁵⁷ 하였는가 목마른 이 물을 주어 갈수공덕⁵⁸ 하였는가 병든 사람 약을
 주어 음민공덕⁵⁹ 하였는가 높은 산에 불단 지어⁶⁰ 중생공덕⁶¹ 하였는가 좋은 밭에 원두 심어⁶² 행인
 해갈⁶³ 하였는가 부처님께 공양 올려 마음 닦고 앙침하야 염불공덕 하였는가 어진 사람 모해하고 불해
⁶⁴ 행사만 하며 탐세함이⁶⁵ 극심하니 너의 죄목 어찌하리 죄악이 심중하니 풍도옥에⁶⁶ 가두리라 착한
 사람 불러드려 위로하고⁶⁷ 대접하며 못 쓸 놈들 구경하라 이 사람은 성심으로 극락세계 갈 것이니 이
 아니 좋을 손가 소원대로 물을 적에 네 원대로 하여주마 극락으로 가겠느냐 백만 군중 도둑되어⁶⁸ 장수
 목이 되겠느냐 어서⁶⁹ 장생불사하겠느냐 서옥에 사자되어 박패소임⁷⁰ 하겠느냐 네 소원을 아뢰어라
 왕제에게 품을 올려
 남자 중 미남 되어 요지연에⁷¹ 가겠느냐
 백만군중 도둑되어 장수몸이 되겠느냐⁷²
 어서 바빠 아뢰어라 왕제전에 주문하여
 석가여래 아미타불 제도하게 이문하자
 산신 불러 의논하여 어서 바빠 시행하자
 저런 사람 성심으로 지은 대로 가느니라

대웅전에73 초대하여 다음에 대접하며
못 쓸 놈들 잡아내서 착한 사람 구경하라
너희 놈은 죄 중하니 풍도옥에 가두리라
남자 죄인 죄 치른 후 여자 죄인 잡아드려
엄한 국문74 하는 말에 너희 죄목 들어 보아라
시부모와 친부모께 지성으로 하였느냐
동기간에 우애하며 친척간에 화목하였느냐
개악하고 간특한 년 부모 가정 거역하고
동기간에 이간하고 형제 불목 하게 하여
세상 간악 다 부리어 열두 마음 변한75 못 된 너인데
옥을 하고 마주 안자 우선 낙삼아76 군말하고
성내는 년 남의 말을 일삼은 년 시기하기
좋아한 년 비도옥에77 가두리라 죄목을
물은 후에 온갖 형벌 하는구나
죄의 경중
알리어서 차례대로 처벌할 제 도산지옥78
한천지옥79 경주지옥80 탐선지옥 81 독사지옥82
아침지옥83 거래지옥84 거해지옥85 각처 지옥
분부하야 모든 죄인 척결한 후에 대연을86
배설하고 착한 여자 불러드려 공경하며
하는 말이 소원대로 다 일러라 선녀되어
가려느냐 요자연에 가려느냐 남자되어
가려느냐 재상 부인 되려느냐 고대광실 황후가
되려느냐 제후왕비 되려느냐 부귀공명
하려느냐 네 원대로 하여주마 소원대로
다 일러라 선녀 불러 분부하야 극락으로
가게 하니 그 아니 줄을손가 성심하고 마음 닦아서
불귀황사87 하지마소 회심곡을88 없이 여기지 마소
선심공덕 아니하면 우마 형상89 못 면하고
구렁이 뱀 못 면하네 조심하며 수신하소
수신제가 능히 하면 치국 안민 할 것이니
아무썩록 힘을 쓰고 적덕을 많이 하면
신후사가90 착륙하니 바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선사업 많이 하여 대왕 길을91 잘 닦아서
극락으로 나아가세

[각주]

- 1) 시주님네 : 종이나 절에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이 시주(施主)이고, 시주한 사람이 시주님. 곧 불교에서 종이 신도를 일컫는 일반적인 호칭
- 2) 칠성님 전 : 칠원성군(七元星君)의 존칭. 칠원성군은 북두(北斗)의 일곱 성군으로 탐랑성군(貪狼星君), 거문성군(巨文星君), 녹존성군(祿存星君), 문곡성군(文曲星君), 염정성군(廉貞星君), 무곡성군(武曲星君), 파군성군(破軍星君)의 일곱 신. 또한 칠성각이나 칠성전의 주인
- 3) 재정임 전 : 복을 내려주는 신
- 4) 이삼십을 : 앞 귀와 중복된 것으로 보아서 ‘이삼 십을’이 아니고 ‘사오 십을’인 듯싶다.
- 5) ∞ 다 갇아서 : 원문에는 ‘다갇아서’로 되어 있는데 앞뒤 문맥의 의미로 보아서 ‘뭇’이 필사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뭇’ 대신 ‘∞’을 넣었다.
- 6) 여류하여 : 여류(如流)는 유수(流水)와 같은 말로 흔히 세월이 빠름을 형용한 뜻
- 7) 여류하여 : “춘초(春草)는 연년녹(年年綠)이나 왕손(王孫)은 귀불귀(歸不歸)”라는 시구다. “봄날의 풀은 해마다 푸르는데 한 번 간 왕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무한한 자연과 유한한 인간을 대비시켜 사람의 삶이 무상함을 읊은 시구이다. 두보(杜甫)의 유명한 작품 춘망(春望)의 서두인 “국파산하재성춘초목심(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나라는 패망했어도 산하는 그대로인데, 성터에는 봄이 되어 초목만 무성하구나)”을 생각나게 한다.
- 8) 성성 약질 : 연약하고 가냘픈 약한 체질
- 9) 판수 불러 : 점치는 것을 업으로 삼은 소경 불러
- 10) 경 읽은들 : 경서(經書). 성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질서가 정연해서 마치 날줄과 씨줄로 짠 베와 같다고 해서 경(經)이라고 이른다. 여기서의 판수가 외는 기도문이나 주문.
- 11) 무녀 불러 : 무당(巫堂). 원시적 샤마니즘인 민속신앙에서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신녀(神女). 선악의 정령(精靈)과 직접 통하여 인간의 재앙을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세습무당(世習巫堂)과 강신무당(降神巫堂)으로 나뉘어진다
- 12) 세미쌀을 : 그 해 초에 나라에서 늙은이에게 나누어주던 쌀을 세미(歲米)라고 한다. 또한 조세로 바치던 쌀도 세미(稅米)라고 한다. 여기서의 세미(歲米)다.
- 13) 쓸고 쓸어 : 초벌 정미한 쌀을 곱도록 다시 겨를 벗겨 내는 일
- 14) 머리를 씻고 : 원문에는 “미을 싹꼬”로 되어 있다. ‘머리를 씻고’의 방언인 듯하다
- 15) 소지 삼 장 : 소지(燒紙) 세 장. 소지(燒紙)는 신령 앞에서 비는 뜻으로 얇은 종이를 불살라서 공중으로 올리는 일 또는 그 종이.
- 16) 신장님 전 : 신병(神兵)을 거느린 장수. 주로 주신(主神)을 모시며 경계의 임무를 맡은 신.
- 17) 공양함을 : 공양(供養)은 부처님이나 신에게 음식이나 재물을 대접해 올리는 것.
- 18) 가뭇이나 : 미상.
- 19) 제일 전에 : 전(殿)은 임금, 신, 성현, 부처님과 같이 가장 큰 분이 계시거나 사는 집.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은 대웅전이고, 관음보살을 모신 곳은 관음전, 공자님을 모신 곳은 대성전, 임금이 계신 곳은 궁전이다. 임금을 전하(殿下)라고 한 것은 ‘전 밑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다
- 20) 주광대왕 : 염라시왕(閻羅十王) 중 한 분인 주광대왕(奏廣大王).
- 21) 초강대왕 : 염라시왕 중 한 분인 초강대왕(初江大王).
- 22) 송제대왕 : 염라시왕 중 한 분인 송제대왕(宋帝大王).

- 23) 완강대왕 : 염라시왕 중 한 분인 오관대왕(伍官大王).
- 24) 염라대왕 : 저승의 시왕(十王) 중 한 분.
- 25) 병선대왕 : 염라시왕 중 한 분인 변성대왕(變成大王).
- 26) 태산대왕 : 염라시왕 중 한 분인 태산대왕(泰山大王).
- 27) 평등대왕 : 염라시왕 중 한 분인 평등대왕(平等大王).
- 28) 두시대왕 : 염라시왕 중 한 분인 도시대왕(都市大王).
- 29) 술너대왕 : 염라시왕 중 한 분인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
- 30) 확통 같이 : 미상
- 31) 삼대 같이 : ‘삼’은 대마(大麻)이며, ‘삼대 같다’는 말은 흔히 키가 큰 삼대가 서 있는 것 같이 병사나 신장들이 엄숙하고 위엄 있게 정렬하고 서 있는 것을 형용한 말
- 32) 혼비백산 : 혼비백산(魂飛魄散)은 혼백이 흩어진다는 말로, 몹시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형편을 가리키는 말
- 33) 사자님네 : 사자(使者)는 심부름꾼이나 여기서는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잡아가는 귀신
- 36) 북망산천 : 북망산(北邙山) 중국 장안의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인데 왕후장상의 무덤이 많은 곳으로 공동묘지나 저승을 상징한 말.
- 37) 만단술회 : 끝없는 회포.
- 38) 구사당에 : 옛 사당에. 사당(祠堂)은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 놓은 집이다
- 39) 현배하고 : 하직 인사를 올린 것.
- 40) 적삼 내어 : 윗도리에 입는 홑옷.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적삼을 지붕 위에 내다가 거는 풍속이 있다
- 41) 초혼하고 :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일
- 42) 천방지방 : 천방지축(天方地軸)과 같은 말로 너무 급하여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함부로 날 뛰는 것
- 43) 악에 악심 : 악한 일에 악한 마음
- 44) 우두나찰 : 우두나찰(牛頭羅刹)은 소의 머리 형상을 한 저승에 있는 귀신의 하나로 사람을 잡아먹으며, 지옥에서 죄인을 못 살게 구는 악한 귀신.
- 45) 마두나찰 : 말의 형상을 한 저승의 지옥에 있는 귀신으로 사람을 잡아먹고 죄수를 괴롭히는 악한 귀신.
- 46) 인정 달라 :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혹한 마음씨를 베풀어 달라고
- 47) 등대할 제 : 미리 준비하고 기다릴 때
- 48) 자리하고 : 미상
- 49) 죄 판관이 : 최판관(崔判官)의 오기인 듯하다. 최판관은 저승에서 죽은 사람에게 대하여 살았을 때의 선악을 판단하는 벼슬아치
- 50) 어두가면 : 원문에는 ‘어두괴면’으로 되어 있으나 ‘어두가면(魚頭假面)’의 오기일 것이다. 물고기의 머리 모양의 가면을 쓴 나찰
- 51) 기치창검 : 기치창검(旗幟槍劍)은 군중(軍中)에서 쓰는 기, 창, 칼 등의 총칭.
- 52) 삼렬할 때 : 촘촘하게 늘어서 있을 때
- 53) 공봉비오 : 미상
- 54) 왓선면 : 미상

- 55) 아사 구제 : 아사(餓死)는 굶어 죽는 것. 그러므로 굶어 죽는 것을 구제한 공덕.
- 56) 행인공덕 : 지나가는 길손에게 먹거리나 인정을 베푸는 공덕
- 57) 월천공덕 : 월천(越川)은 물을 건너다는 말이므로 월천공덕(越川功德)은 깊은 내를 건너는데 도움을 준 공덕의 일종.
- 58) 갈수공덕 :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공덕
- 59) 음민공덕 : 미상
- 60) 불단 지어 : 부처님을 모시는 사찰이나 암자 등 불교의 제단.
- 61) 중생공덕 : 중생을 구제하는 공덕. 불자들의 수행 목표인 사홍서원(四弘誓願)의 첫째가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끝없는 중생을 구하리라고 원하고 맹세한다)다.
- 62) 원두 심어 : 채소를 심어. 원두(園頭)는 밭에 심은 오이 수박, 참외, 호박 등의 총칭.
- 63) 행인해갈 : 길손의 목 마른 것을 풀어주는 것.
- 64) 불혜 : 미상
- 65) 탐세함이 : 욕심과 시샘
- 66) 풍도옥에 : 저승에 있는 감옥
- 67) 위로하고 : 원문에는 ‘로하고’로 되었으나 앞에 ‘위’자가 빠진 듯함
- 68) 도독되어 : 원문에는 ‘노독되어’로 되어 있으나 ‘도독되어’의 잘못된 듯함
- 69) 어서 : ‘어서’ 다음에 ‘말하라’, ‘대답하라’ 같은 말이 빠진 듯하다
- 70) 박패소임 : 미상
- 71) 요지연에 : 요지연(瑤池宴)은 중국의 주(周)나라 때 목왕(穆王)이 곤륜산으로 사냥을 가서 선녀 서왕모(西王母)를 만나서 노닐었던 상상의 선경
- 72) 되겠느냐 : ‘백만 군중 도독 되어 장수 몸이 되겠느냐’는 앞의 구절이 반복되었다. 필사과정 중 잘못된 듯하다
- 73) 대웅전에 : 대웅전(大雄殿)은 각황전(覺皇殿)이라고도 이르며 본존불인 석가여래를 모신 사찰의 대표적인 법당.
- 74) 엄한 국문 : 국문(鞫問)은 역모와 같은 큰 죄인을 국청(鞠廳)에서 심문하는 것. 여기서는 염라시왕이 이생의 죄를 묻는 것
- 75) 열두 마음 변한 : 하루에 열 두 번 마음이 변한 것. 마음이 자주 변하여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을 형용한 말
- 76) 우선 낙삼아 : 원문은 ‘우섬낙산’으로 되어 있다. ‘우선 낙삼아’의 잘못된 듯하다. 우선 재미나 즐거움 삼아서
- 77) 비도옥에 : 저승의 감옥.
- 78) 도산지옥 : 저승의 감옥
- 79) 한천지옥 : 저승의 감옥
- 80) 경주지옥 : 저승의 감옥
- 81) 탐선지옥 : 저승의 감옥
- 82) 독사지옥 : 저승의 감옥
- 83) 아침지옥 : 저승의 감옥
- 84) 거래지옥 : 저승의 감옥

85) 거해지옥 : 저승의 감옥

86) 대연을 : 큰 잔치

87) 불귀횡사 : 불귀(不歸)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 하는 저승길. 횡사(橫死)는 재해나 사고로 죽는 것.

88) 회심곡을 : 회심곡(回心曲)은 원래 불교의 대중적인 포교를 위하여 알아듣기 쉬운 한글 사설을 민요선율에 얹어 부르는 노래다. 휴정(休靜) 서산대사(西山大師)가 사람들에게 선행을 권하려고 지은 [회심곡(回心曲)]이라는 불교가사가 있다. 서산대사의 [회심곡]은 1,776년 해인사에서 펴낸 목판본 보권염불문(普勸念佛文)에 실려 전한다. 순 한글로 [회심가곡]이라고 하여 나옹화상(懶翁和尚)이 지은 [서왕가(西往歌)]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89) 우마 형상 : 우마(牛馬) 곧 소와 말의 모습

90) 신후사가 : 미상

91) 대왕 길을 : 염라대왕이 계신 저승 길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